칼빈의 <공관복음 주석>에 나타난 섭리 이해

이신열 (고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네덜란드의 칼빈 연구가 셀더르하위스 (Herman Selderhuis)는 칼빈의 시편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정한 신학'이며 섭리만이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1] 칼빈 신학에 있어서 섭리가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이미 100 여년 전에 칼빈의 섭리론이 그의 모든 신학의 뿌리 (Stammlehre)에 해당된다고 내세웠던 보하텍 (Josef Bohatec)의 공헌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2]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은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성경 주석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된 셀더르하위스의 단행본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섭리론은 사실상 모든 교리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 전제로서 작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교리들과의 직접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고찰되기 보다는 보존, 협력, 통치라는 일반 섭리의 범주에 국한되기에 이르렀다.[3] 물론 섭리론이 모든 교리들을 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이런 제한으로 인해 적어도 모든 피조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이 교리가 지닌 원래적 의미를 제대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은 인정되어야 한다. 섭리가 우리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다루는 교리라면, 이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국한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섭리론은 창조론 이후에 다루어지는 다른 모든 교리들의 전제로 작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고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진정한 신학, 하나님의 현존을 다루는 신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시각에서 다른 교리들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의 칼빈 연구가 파커 (T. H. L. Parker)는 칼빈의 섭리론은 성경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칼빈의 섭리 개념은 성서에서 도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는 신적 원인과 지상적 결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4] 그의 이러한 주장은 본 논문이 칼빈

---

1)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칼빈의 시편신학』, 장호광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31.

2) J. Bohatec, "Calvins Vorsehungslehre," *Calvinstudien: Festschrift zum 400. Geburtstage Johann Calvins* (Leipzig: Haupt, 1909), 414.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and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1), 7에서 인용.

3)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751-52.

4)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5), 43. 이양호, "섭리론," 『칼빈신학해설』, 한국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93에서 재인용.

의 섭리론을 그의 성경주석에서 고찰하려는 시도에 동의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칼빈 섭리 연구에 있어서 그의 성경 주석에 관한 고찰에서 그동안 거의 간과되어 왔던 <공관복음주석 (1555)>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고자 한다.[5] 공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성경의 일차적 (primary) 보고이므로 칼빈의 섭리론 이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섭리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그 목적과 결과를 먼저 고찰한 후, 이에 근거하여 섭리를 일반 섭리와 특별섭리의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섭리의 기원과 성격

1) 기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었다고 밝힌다.[6] 이적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칼빈은 섭리의 기원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하나님의 능력 외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arcana gratia)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마태복음 4:4에 언급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해하면서 칼빈은 우리가 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떡 자체에 내재한 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자비하심이 이에 작용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한다.[7]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자비하심의 속성과 결합되어 생명의 보존이라는 섭리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또한 칼빈은 섭리가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Dei bonitas)에서 출발한다고 마태복음 15:21 이하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와 이를 체험한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주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향기가 이방 지역들에 퍼져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이며 믿을 수 없는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8]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섭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선하심이라는 그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2) 성격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섭리는 어떤 구체적 성격 또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해답을 제공한다.
첫째, 섭리는 적어도 그 원인에 있어서 은밀성 (hiddenness)을 지니고 있다. 섭리의 기원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은 사람의 눈과 이해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9] 칼빈은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녀를 떠나려 했던

---

5) 슈라이너는 칼빈의 섭리론에 있어서 시편과 욥기가 중요한 주해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7.
6) *Ioannis Calvini Opera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et E. Reuss (Brunsvigae: Schwetschke et Filim, 1891), Vol. 45, 330 (마 12:17). 이하 *CO*로 약칭하여 표기함.
7) *CO* 45, 132.
8) *CO* 45, 456 (마 15:22).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이 성령의 은밀한 감동(arcano spiritus instinctu)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요셉의 행동배경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었으며 마리아도 자신이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덧입어 임신한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은밀한 섭리에 기인한 것이었다.[10]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행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이유에 해당된다.

둘째, 섭리는 보편성 (universality)을 지니고 있다. 섭리가 만물의 조성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시행된다면 이는 그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성은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향해서 행하시는 보존 (preservatio)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칼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 보편적으로 (generaliter) 미친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신다."[11] 섭리는 가장 하찮은 일에서부터 가장 크고 엄청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섭리는 또한 임의성 (arbitrariness)을 지닌다. 여기서 임의성이란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따라 섭리를 행하시지만 이로 인해 피조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섭리는 그 자체로서 임의성을 지니게 된다. 임의성은 섭리가 그 보편성에 근거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획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고를 배제한다. 이는 섭리의 시행을 놓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특정한 방식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에 다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은 사건을 설명하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 4:25에 대한 주해에서 칼빈은 섭리의 임의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 "또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혜택들을 나누어 주시되, 높은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낮고 가장 경멸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존귀함을 더해 주신다는 방식으로 어떤 규칙을 정하여 요구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견에 옳게 여겨지는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12]

넷째, 섭리에는 목적 지향성 (purpose-directedness)을 지니고 있다.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시행이라는 차원이 포함된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사망의 깊은 심연에서 건지셔서 온전한 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13] 칼빈이 일반 섭리를 보존과 통치로 나누어서 고찰함에 있어서 때로 이 개념들이 서로 중첩되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섭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이며 보존, 통치, 그리고 협력이 사실상 서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포괄되는 개념이라는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14] 예를 들면, 누가복

---

9) W. J. Torrance Kirby, "Stoic *and* Epicurean? Calvin's Dialectical Account of Providence in the *Institu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 (2003): 319. 커비는 여기에서 <기독교 강요> 1.16.8을 논의하면서 칼빈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은밀성'은 불변성 (immutability)와 더불어 이방인들의 사고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10) *CO* 45, 62-63 (마 1:19). Cf. 『기독교 강요』, 1.16.9.

11) *CO* 45, 289 (마 10:29); 45, 290 (마 10:31).

12) *CO* 45, 145.

13) *CO* 45, 142 (눅 4:18).

음 22:36 주해에 있어서 칼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함에 있어서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전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는 제자들의 생명 보존이라는 섭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의도는 양식의 공급이라는 섭리가 복음 전파를 훼방하는 사탄과의 투쟁을 위한 예비적 차원을 위해 소용된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라고 설명한다.[15] 이런 차원에서 이 구절에 나타난 섭리는 제자들의 보존과 사탄과의 투쟁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III. 섭리의 목적과 결과

앞서 언급된 섭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 섭리의 성격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살펴보게 될 목적은 하나님이 섭리의 수혜자인 인간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목적

칼빈은 섭리의 목적을 주로 구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칼빈은 마태복음 13:12을 주해하면서 섭리가 인간을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끌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도록" 이끈다고 주장한다.[16] 섭리는 그리스도가 부활이자 생명이심을 증명하여 죄인을 악과 그 참상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며,[17]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18] 아울러 칼빈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섭리의 주된 목적이며 선행을 위한 동기부여의 목적도 아울러 지닌다고 말한다.[19]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칼빈은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섭리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설명한다.[20]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영적 유익으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이끌고,[21]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죄악을 깨닫고 회개에 참여하도록 만든다.[22] 이 유익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때도 이를 능히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칼빈은 마태복음 2:15에 나타난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 언급

---

14)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2: "그러므로 보존, 협력, 통치는 섭리의 사역이 나뉘고,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하나가 다른 것을 뒤따르는 부분들이나 일부가 아니다. ... 섭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단순하고 전능하고 편재한 능력이다."

15) *CO* 45, 716; *CO* 45, 195-96 (마 6:9).

16) *CO* 45, 339 (마 13:12).

17) *CO* 45, 156 (마 8:17). 이 구절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 파커는 칼빈이 일종의 '신비적 해석'에 해당되는 'anagogy'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문의 의미를 채택하여 우리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 (applic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나타난 의미를 자신과 그의 독자들을 위한 영적 진리로 승화 (elevation) 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주로 비유해석에 사용되지만 칼빈은 이를 예수님의 기적에도 적용했다고 보았는데 이는 기적이라는 신화를 비신화한다는 근거에서 볼 때 가능한 것이라고 파커는 주장한다. 여기에서 파커는 칼빈이 예수님의 기적을 문자적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T. H. 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3), 105-106.

18) *CO* 45, 400 (마 22:5).

19) *CO* 45, 189 (마 5:45).

20) *CO* 45, 219 (마 7:11); *CO* 45, 562 (막 10:52); *CO* 45, 424 (눅 17:19); *CO* 45, 142 (눅 4:18).

21) *CO* 45, 296 (눅 14:28).

22) *CO* 45, 745 (마 26:75).

된 “애굽으로부터 너를 불렀다.”라는 구절을 주해하면서 이 예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3]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사망의 깊은 소용돌이에서 구원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교회를 위한 진리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여 어린 시절의 일부를 거기에서 보내게 된 사실에 유비적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 이 사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께서 이방 애굽에서 자라나셔야 했는가라는 의문, 또는 “구속주가 애굽에서 나오다니!” 라는 경멸감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굽 피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과 경멸감을 자아내는 듯한 이 섭리의 목적은 앞서 언급된 목적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정적 차원을 극복하고 이를 받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2) 결과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지닌 섭리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어떤 구체적 결과 또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가? 칼빈은 섭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함께 논의하면서 이를 대조시키는 방법을 주로 취한다.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거주하였던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8:37-38에 나타난 대조적 표현이 칼빈의 관심을 집중시킨다.[24] 예수님의 이적이 행해진 후에, 먼저 37절에는 이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단지 들어서 알기만 했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지만 38절에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대조적 기사 내용이 활용된다. 칼빈은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자들로, 후자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 자들로 구별하고 대조하여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 잡혀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쳐서 가능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리 두고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온유하심에 이끌리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25]

계속해서 39절은 이렇게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이 사람이 예수를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해하면서 예수님이 고침 받은 자에게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목적이 아직 그의 “신성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백성들을 이러한 점진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26]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지니게 되어서 그 원래 목적에 해당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니기 때

---

23) *CO* 45, 99. 이 구절과 호세아 11:1과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교회론적 차원에서 상세히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ieter Schellong, *Calvins Auslegung der synoptischen Evangelien* (München: Chr. Kaiser, 1969), 239f.

24) 유사한 사고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려온 맹인과 벙어리가 고침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들의 신성모독과 백성들의 환호성 사이에 나타난 대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 45, 261 (마 9:34).

25) *CO* 45, 272.

26) Ibid.

문이다.[27] 예수께서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이적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섭리를 행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로 요약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에 주목하면서 칼빈은 섭리의 결과를 신앙과 불신앙을 대조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설명해 나간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추의 일종에 해당하는 anagogy를 사용하여 본문의 핵심적 의미를 자신과 그의 독자들에게 전이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28] 즉 공관복음서에서 이적을 위시한 그리스도의 행위가 신자들에게 수용되는 경우는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들의 불신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첫째, 신앙으로 섭리가 수용된 경우 삶에서 경험되었던 곤경이 때가 되면 해소될 것이며,[29] 비록 만물이 혼란 중에 놓여 있고 마귀가 세상 질서를 전복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혼란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질서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직시할 수 있는 영안이 제공된다.[30] 또한 이적의 섭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른다.[31]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대한 경외감의 기초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섭리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의 위대함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끈다.[32]
신앙 그 자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지만 인간의 신앙은 불완전하며 연약한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섭리의 목적은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는 신앙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강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의 믿음에 나타난 결점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 그의 겉옷에 손을 대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기사 가운데 마태복음 9:20을 주해하면서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자하심과 온유하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흠들과 불완전한 것들과 관해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33]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 여인의 믿음이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를 귀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치유라는 도우심을 통해 이를 더욱

---

27) *CO* 45, 271 (막 5:15).
28) 위의 각주 16을 참고할 것.
29) *CO* 45, 283 (마 10:19).
30) *CO* 45, 734 (마 26:56).
31) *CO* 45, 261 (마 9:32,34).
32) *CO* 45, 312 (마 11:21).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269. 여기에서 슈타우페르는 섭리에 있어서 '감사'의 모티브를 언급한다. 이오갑, "칼빈의 섭리론,"「한국조직신학논총」16 (2006): 29에서 인용.
33) *CO* 45, 256.

견고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섭리는 그 자체로서는 완전하지 않음을 칼빈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이적 그 자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믿음의 진정한 확증은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 여인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배운 것을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그녀가 받은 혜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는다."[34] 이 사실은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어지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재차 상기시킨다.[35]

둘째, 불신앙으로 인해 섭리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 막는 장애물일 뿐 아니라, 그를 향한 문을 닫는 것인데,[36]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후히 베푸시는 은혜가 올바로 체험되지 않았음을 뜻한다.[37] 칼빈은 이를 마가복음 9:23을 주해하면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익한 가르침, 즉 주님의 엄청난 선하심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겨우 한 방울씩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유는 주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좁기 때문이며,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혜택들마저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38]

불신앙은 단순히 섭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왜곡하여 이를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39] 그 결과 불신앙은 악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자리잡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엄청난 불경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른다.[40]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는 자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지적한다. 왜냐하면 악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이를 찾지 못하게 되므로 자멸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1] 칼빈은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누가복음 2:34을 주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징벌은 자신이 행한 악행의 결과에 해당하는 자멸일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패망이므로 이는 이중적 징벌에 해당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성령은 불신자들에 대한 형벌을 패망 (ruinum)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 그리스도 없이 이미 패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패망 시키신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

---

34) *CO* 45, 257 (마 9:22).
35) *CO* 45, 131 (마 4:3).
36) *CO* 45, 36 (눅 1:45); *CO* 45, 144 (눅 4:24).
37) *CO* 45, 238 (마 8:13).
38) *CO* 45, 495 (막 9:23); *CO* 45, 258 (막 5:36); *CO* 45, 238 (마 8:13); *CO* 45, 427 (마 13:58).
39) *CO* 45, 292 (눅 12:51); *CO* 45, 261 (마 9:34); *CO* 45, 197 (마 6:9).
40) *CO* 45, 361 (막 4:12); *CO* 45, 771 (마 27:42).
41) *CO* 45, 380 (눅 7:49).

> 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발적으로 버린 사람들은 두 번 망한다는 것이다. 패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이며 악의적으로 대적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이중적 징벌을 내포하고 있다.[42]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사악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하고 마귀와 공모하여 악을 꾀하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들에 협조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칼빈은 여기에서 이들의 배은망덕함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지적한다.[43] 이는 섭리를 부인하고 왜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채 오히려 마귀를 신뢰하고 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뜻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데리고 왔던 맹인들과 벙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해 고침 받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의 힘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치부했다. 칼빈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의 능력의 근원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독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마땅한 심판은 하나님의 원수들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이해하였다.[44]

칼빈은 마태복음 23:34을 주해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은 것은 악인들의 악을 최고조에 달하도록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이로 인해 악인들은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45] 그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35을 주해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반항의 핵심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들을 죽이는 죄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과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러므로 개개인들이 어느 세대에 속하였든 간에, 유대 민족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단한 인내로써 끊임없이 유대 민족 전체의 악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다투셨으므로, 유대민족 전체가 고집불통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은 죄에 대하여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의 각 세대가 서로 공모하여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모든 세대가 한 통속이 되어 일관되게 저질러온 모든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모든 세대에게 그 죄를 돌리시고 그들 모두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46]

IV.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섭리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흔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은 <공관복음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섭리를 중요한 주제로 간주하고 이를 복음서 이해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여기에 언급된 많은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임을 아울러 보여준다.[47] 칼빈은

---

42) *CO* 45, 93.
43) *CO* 45, 346 (마 12:43); *CO* 45, 152 (마 4:23).
44) *CO* 45, 597 (마 21:43).
45) *CO* 45, 638.
46) *CO* 45, 639-40.
47) *CO* 45, 152 (마 4:23); *CO* 45, 237 (마 8:8); *CO* 45, 247 (마 9:8); *CO* 45, 153 (막 1:22; 눅 4:32). 이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적 위엄과 죄사함의 권세에 의해 입증된다. *CO* 45, 150 (마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의 섭리가 그가 친히 섭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라는 사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섭리의 두 가지 요소인 보존과 통치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되는가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밝힌다.

1) 섭리의 객체와 주체이신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섭리의 대상이 되셨으며 또한 어떻게 친히 섭리를 행하시는가에 관한 두 가지 사실로 집중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섭리의 객체(object)임과 동시에 주체 (subject)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단락의 주제에 해당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되시는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관련해서 마리아를 위시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행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행동함으로서 그의 탄생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이사 아우구스도, 동방 박사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심으로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48] 그리스도께서 성인이 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셨다.[49]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하신 섭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또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음모했던 유다의 행위를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일어난 일로 간주하면서 아울러 이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50]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이 행했던 여러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참으시면서 겪으셨던 모욕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재료로 승화되었다.[51] 총독 앞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52]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하셔서 그의 장사를 치르게 하셨던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53] 탄생에서 성장, 죽음, 그리고 장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었음이 관련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를 주관하시며 이를 직접 행하시는가에 관한 것이다. 섭리의 주체로서 그리스도는 다양한 종류의 이적을 행하셨다.[54] 그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구원에 관계되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이 베푸시는 구원의 확증과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기 위한 것이었다.[55]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허락하시

5:8); *CO* 45, 244 (마 9:1).

48) *CO* 45, 63 (마 1:19); *CO* 45, 71 (눅 2:1이하); *CO* 45, 82 (마 2:1); *CO* 45, 85 (마 2:7); *CO* 45, 86 (마 2:9); *CO* 45, 97 (마 2:13); *CO* 45, 99 (마 2:15).

49) *CO* 45, 131 (마 4:1); CO 45, 137 (마 4:11); *CO* 45, 135 (마 4:6).

50) *CO* 45, 702 (마 26:24).

51) *CO* 45, 740 (마 26:67).

52) CO 45, 751 (마 27:11). 이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바이기도 하다 (마 21:16). 폴 헬름,『하나님의 섭리』, 이승구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4), 119.

53) *CO* 45, 787 (마 27:57); *CO* 45, 789 (마 27:59).

54) *CO* 45, 231 (마 8:1), *CO* 45, 237 (마 8:8); *CO* 45, 239 (눅 7:11, 12, 14); *CO* 45, 257 (눅 8:45); *CO* 45, 422 (눅 17:12).

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위함이다.[56] 또한 그는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다스리신다.[57]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동시에 섭리의 객체이자 주체가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에 대한 칼빈의 해설이다. 이 구절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사역과 관련된 것인데 누가복음 23:42과 마태복음 27:50이 이에 해당된다. 칼빈은 먼저 누가복음 23:42을 주해하면서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믿음의 눈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강도가 지닌 마음의 눈이 얼마나 예리했는가를 보게 된다. 이 마음의 눈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생명을, 비천하신 모습 속에서 높아지신 모습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모습 속에서 영광을,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습 속에서 승리를, 결박당하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58]

이 강도에게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의 섭리를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모습은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칼빈은 마태복음 27:50을 주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가 자신을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기셨다고 이해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을 보호할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그의 영혼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도 한 묶음으로 맡기심으로써 그들의 영혼도 그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권세를 얻으신 것이 때문에, 황송하게도 천부께서는 모든 영혼을 친히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권세를 그리스도의 손에 넘기셔서,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59]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섭리의 객체이심과 동시에 주체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2)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의 보존과 통치
칼빈의 섭리에 관한 이해는 '보존 (preservatio)'과 '통치 (gubernatio)'의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이 두 개념은 때로는 각기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때로는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보존과 통치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55) *CO* 45, 262 (마 9:35); *CO* 45, 311 (마 11:20).
56) *CO* 45, 798 (마 28:8); *CO* 45, 244 (마 9:1); *CO* 45, 246 (마 9:6). 헬름, 『하나님의 섭리』, 118: "그 성격상 섭리는 은혜로운 경우가 많고, 은혜는 반드시 섭리적이다."
57) *CO* 45, 828 (막 16:19); *CO* 45, 826 (마 28:20).
58) *CO* 45, 774.
59) *CO* 45, 782.

첫째, 칼빈은 그리스도께는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섭리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행하시는 섭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조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힌다.[60] 마태복음 8:23을 주해하면서 칼빈은 먼저 "격렬한 풍랑이 자기 아들을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6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역을 언급한다. 거센 풍랑이 일어난 사실,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서 깊이 잠드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존된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칼빈은 이해하였다. 이제 자신의 생명의 보존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체험한 그리스도께서 피조세계를 대상으로 친히 통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연장 또는 완결이라는 차원에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묘사된다.[62]

또한 칼빈은 마태복음 14:28을 주해하면서 칼빈이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를 건져낸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망 상태에 빠진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라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방금 전에 물을 마치 단단한 길처럼 만들어 주었던 저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았고 .... 그러나, 주님은 ... 물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 버리지 않도록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신다."[63]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는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인식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서 그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보존과 통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행해진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사역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온갖 악과 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결부된 것이며 이를 위한 사역이었다.[64] 칼빈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위험에 처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한다.[65]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는 그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믿음은 곧 그의 통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66]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서 이들을 친히 다스리신다.[67]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탄과 원수들을 제압하고 정복시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가리키는데[68] 이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그의 사역의 완성을 위한 것

---

60) 『기독교 강요』, 1.16.6. 여기에서 이는 특별섭리로 이해된다. Cf. 이오갑, "칼빈의 섭리론," 24.
61) *CO* 45, 264.
62) *CO* 45, 266.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실례가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건 (마 8:28-34; 막 5:1-20; 눅 8:26-39)에서 발견된다.
63) *CO* 45, 443.
64) *CO* 45, 156 (마 8:17).
65) *CO* 45, 601 (마 22:18).
66) *CO* 45, 380-81 (눅 7:50).
67) *CO* 45, 618 (마 22:43).
68) *CO* 45, 197 (마 6:9).

이다. 주로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보존과 통치의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될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복음을 인치고 확증한다. 칼빈은 마태복음 9:35을 주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섭리 사역과 복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구원의 가르침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이적들을 더하심으로써 그 가르침을 확증하시는 일을 계속하셨다. 이미 말했듯이, 천국복음은 복음전도라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서 붙여진 명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흩어져 비참하게 살고 있던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으셔서, 그들 가운데서 통치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온전한 복을 베푸시려는 명시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그의 보좌를 세우셨다.[69]

보존과 통치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칼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섭리의 사역과 동일시되며 또한 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에 놓여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칼빈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존과 통치를 현재와 종말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70] 여기에서 현재와 종말의 이중적 구조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칼빈은 먼저 교회에 대한 '현재'의 구조를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4:22을 주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지키시며, 성령의 은사들로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며, 그의 은혜로 교회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등, 한 마디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사탄 및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억제하시고, 그들의 온갖 궤계를 무너뜨리신다는 점에서, 현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통치는 육신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나타남은 마지막 날까지 연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71]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존은 현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수많은 환난을 모두 제거하거나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의 현재적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깃발로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72]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시며,[73]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통해 교회에

---

69) *CO* 45, 262.

70)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빌헬름 니이젤,『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70-71.독일의 칼빈 연구가 크루쉬는 성령론적 차원에서 칼빈의 교회 이해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이러한 성령론적 고찰은 여기에 언급된 현재와 미래의 구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맥상통하는 차원이 존재한다.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316-38.

71) *CO* 45, 662; 유사한 사고가 그의 누가복음 19:12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CO* 45, 568).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337.

속한 자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심에서 발견된다.[74] 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현재 감추어져 있지만 이는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을 명령하고 격려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활기를 조금도 잃지 않는 이유에 해당된다.[75]

그렇다면 칼빈은 '종말'의 구조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존과 통치라는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현재적 통치는 단지 교회에서만 인식되고 신뢰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실재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종말의 징조로 임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며,[76] 이러한 가시적 징조들과 더불어 임하게 될 큰 환난은 복음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척한 자들에게 주어질 형벌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미리 보여준다.[77] 이런 관점에서 종말에 이르러 교회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존과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지만 여기에서 칼빈의 강조점은 통치에 더욱 무게를 두게 된다.

칼빈은 마태복음 25:31을 주해하면서 현재와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섭리 사역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제시한다.

>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통치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에 대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그 보좌를 사람들의 눈앞에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그의 신적 엄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고, ...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들을 억제하시고 교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통치하시지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에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고, 그의 원수들을 발로 짓밟으시고, ... 그의 심판 자리에 오르실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나라를 주신 목적이 현실의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78]

칼빈의 견해에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사역은 교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통치가 행하진다는 차원이 강조되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제한적 성격을 지녔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논의된 칼빈의 섭리에 대한 논문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소논문에 국한되는 편협성을 지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섭리론은 하나님의 현존의 신학이며 이는 섭리가 다른 모든 교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함을 뜻

---

72) *CO* 45, 676 (마 24:40); *CO* 45, 668 (마 24:31). 칼빈은 같은 장 28절의 주해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 사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에 ... , 도출되는 결론은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분리되거나 흩어질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CO* 45, 665).

73) *CO* 45, 595 (마 21:42).

74) *CO* 45, 625 (마 23:10).

75) *CO* 45, 670 (마 24:32).

76) *CO* 45, 652 (마 24:6).

77) *CO* 45, 661 (마 24:21).

78) *CO* 45, 686 (마 25:31).

한다. 또한 칼빈의 섭리 이해가 성경에서 도출된 교리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논문은 칼빈의 <공관복음 주석>에 나타난 섭리에 대한 이해를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섭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속성, 즉 그의 전능,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원은 그가 이해한 섭리의 네 가지 성격과 관련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섭리가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음을 뜻하는 은밀성,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을 포괄하므로 이의 시행에 해당하는 섭리가 모든 만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행해진다는 임의성, 그리고 섭리가 구체적 목적, 특히 인간 구원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향해 주어진다는 목적 지향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섭리는 구원과 관련된 목적을 지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 목적은 이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쳐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섭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에서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 수용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불신앙이 섭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섭리에 대한 신앙적 수용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는 영안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불신앙이 섭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왜곡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불경건함을 초래한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마귀를 신뢰하고 좇는 참람함의 극치로 이끈다.

셋째, 섭리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여기에서 칼빈은 섭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다. 먼저 그리스도가 섭리의 객체임과 동시에 주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나타난 능력을 동일한 선상에서 또는 이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그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보존과 통치의 섭리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에 행해진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칼빈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섭리가 현재와 미래의 구조 속에서 교회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현재에는 교회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공관복음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섭리 이해는 그 자체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교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찰을 통해서 칼빈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신학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신학에서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